



한울림 교회

방송설교

KRB(FM87.7)
토 6:30pm / 주일 6:30AM

단비 TV
본방-토 9PM/재방 월 11AM

Youtube - 한울림TV

www.hpcny.org
hulpcny@gmail.com

섬기는 사람들

전도사

차유미

목사

김원재, 양명철, 한성욱

주일예배

오전 11시

교회소식

9월의기도

찬양*

기도인도

봉헌*

말씀교독

특별찬양

말씀선포

찬양과결단*

축도*

예배 인도: 김원재목사

인도자

다같이

다같이

인도자

다같이

다같이

샤마임찬양대

김원재

다같이

인도자

환우를 위한 기도

복의 근원 강림하사(찬 28)

은혜

오직 예수 뿐이네

나의 피난처 예수

만 가지 은혜를(찬 216장 4절)

사도행전 20:1-6,13-16

사랑하는 자들아

“드로아에서 앗소로 가는 길”

예수 사랑하심을(찬 563)

* 일어서서

(서기 힘든 분들은 앞쪽으로 와서 앉으시거나

그 자리에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1.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2. **한울림교회** 등록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 신경애 자매
3. 9월의 기도는 **환우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일예배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환우를 위한 어떤 기도제목들이라도 교역자에게 전달해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 **교적카드**를 예배 후 친교실에서 작성하여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양명철)
5. **중보기도팀**이 오늘(9/26) 예배 후에 새 예배당에서 기도회를 갖습니다. (문의 - 정주애, 양명철)
6. **새가족모임**이 오늘 12시 30분에 지하 아동부실에서 있습니다.
7. **삼공부 “생명의삶”**이 오늘 1시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8. **공천위원회모임**이 다음주일(10/3) 예배 후에 지하 아동부실에서 있습니다.
9. **한성욱 목사**가 오늘로 교회를 사임합니다.
10. 9월부터 **현장새벽기도회**가 "목~토"에 있습니다. “월~토” 영상새벽기도회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1주일에 한번은 새벽기도회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1. 매월 두번째 토요일 새벽기도회는 **“온가족새벽예배”**로 드립니다.
12. 새벽기도회(오전 5:30)에 Zoom을 통하여 영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의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Zoom ID: 3213210608 / PW: 0608
13. 우리 교회 설교가 KRB 라디오방송(FM 101.5 / HD Radio FM 93.5-4 토6:30PM, 주일6:30AM) 단비 기독교 TV(토 9:00PM, 월 11:00AM), youtube의 한울림TV(설교와 칼럼)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도의 수단으로 삼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 주님의 가족

우리말에 '개발새발'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질서한 짐승의 발자국처럼 아무렇게나 쓰여진 글씨를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원래 '괴발개발'이 맞습니다. 지금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쓰다보니 '개발새발'도 맞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괴발개발'에서 '괴'는 고양이를 말합니다. 원래 고양이는 괴의 새끼를 뜻하던 말이었는데, 현재는 '괴'는 사용하지 않게 되었고 새끼를 뜻하던 '고양이'란 말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언어는 사회성으로 인해 이렇게 사라지는 말들이 생깁니다.

어떤 말들은 그 뜻이 바뀐채 사용되기도 합니다. '야단법석'이란 말은 현재 시끄럽고 소란한 광경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부정적인 뉘앙스가 담겨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말은 불교의 중요한 종교적 행사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불교가 국교였던 고려 시대에 권력을 등에 업고 많은 불교 행사가 국민적 행사가 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런 행사를 뜻하는 말을 사람들이 시끄럽고 소란한 부정적 의미로 사용했고, 지금은 원래의 의미는 사라진채 우리가 알고 있는 '야단법석'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언어의 사회성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종교의 타락과 연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종교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 말씀으로 묵상했던 디모데전서 3장에 “하나님의 집”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을 새번역에서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오이코스”란 말이 집 혹은 가족의 의미로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신약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란 표현을 “주님의 가족”이란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교회는 가족이란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신약교회는 진실된 의미의 ‘형제, 자매’라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육체적으로 피를 나눈 형제자매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같은 은혜를 나누는 형제자매라고 생각하며, 혈연적 가족과 동일한 관계를 형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형제, 자매’란 말을 교회 안에서 사용하고는 있지만, 호칭으로만 사용할 뿐 그 말 속에 담긴 능력과 깊은 관계는 잃어버린듯 합니다. 이것은 언어의 사회성이나, 세월의 무게로 설명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지고 있는 회복해야할 과제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가족”입니다. 이것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교회의 참 모습입니다.